

존경하는 이준행 교수님께

이준행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속편한내과 원장으로 현재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속편한내과네트워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도 질환책인 '속편한 식도 이야기'란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1차의료 기관 의사로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을 볼 때마다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해 항상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그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도책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1년 10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속편한 식도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식도책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교수님께서 그 동안 학회에서 발표하신 자료와 EndoTODAY였습니다. 특히 EndoTODAY를 통해 다양한 내시경 case를 접할 수 있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여러 소화관 질환들의 최신 지견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늘리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의료계의 문제들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통해 많은 자극과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차에 마침 오늘 EndoTODAY에 교수님이 쓰신 "감사 편지 한 장 받으면 한 달은 거뜬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란 말을 보고 바로 이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ndoTODAY를 통해 임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만으로도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의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향상은 결국엔 환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다신 한번 많은 소화기내과 의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감히 부족하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 저희 책을 감사의 표시로 보내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9월 대한위장관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때 직접 찾아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준행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영선 올림